

'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 "매우 놀랍고 영광"



소설가 한강 (사진=전예술 문학동네 제공)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 미친 여러 작가들 노력과 힘이 영감"

소설가 한강은 지난 10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강은 "한국 문화와 함께 성장했다"며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에게 동료 소설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스웨덴 한림원 내 노벨위원회의 안테르스 올손 의장은 수상자 선정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하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SNS 엑스(X, 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한

강을 한글로 적으며 이력을 소개했다. 노벨위원회는 한강이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나 9살 때 서울로 이주했으며, 아버지가 저명한 소설가인 문학가 집안 출신이라고 조명했다. 글쓰기와 미술, 음악에도 심취해 왔으며 이는 문학 작품 전반에 반영됐다고 거론했다. 한강의 주요 작품들도 한글로 표기하며 이력을 소개했다. 1993년 잡지 '문학과 사회'에서 다수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단편소설집 '여수의 사랑'으로 산문 데뷔를 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011년 발표한 '희랍어 시간'은 취약한 두 개인의 특별한 관계를 매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2014년 '소년이 온다'에서 자신이 성장한 광주에서 1980년 군인에 의해 수백 명의 학

생과 비무장 민간인이 학살당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증언 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한다고 소개했다. 2012년 출간한 단편 '예우로파'의 한 구절을 언급하기도 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날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안테르스 올손 노벨문학상 심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 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강은 올해 수상 예상자로 거론되긴 했지만,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천체와 일본 무라카미 하루키에는 순위가 뒤졌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건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다. /뉴시스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10월 '이달의 소장품-저울' 전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이달의 소장품-저울' 전시를 '저울, 생업(生業)과 경제(經濟)활동에 중요한 도구'라는 주제로 벽골제아리랑 사업소 내 박물관 로비에서 이달 말까지 작은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저울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고 쉽게 잴 수 있는 도구다. '도량형(度量衡)'이라는 말에서 '형(衡)'이 바로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저울의 역사는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 저울이 삼국시대에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대저울 6점, 약저울 3점, 추 7점이 전시된다. 대저울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까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저울은 약의 무게를 달 때 쓰던 저울로, 예전부터 한약방에서 주로 사용된다. 사회생활이 발달하면서 공정한 물물 거래 등이 요구되었고, 기물 제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모든 제도를 제정하는데 도량형의 통일이 필수적이었다. 이렇듯 저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34회 동리대상' 정병헌 판소리 연구가 선정

판소리 진흥·발전 크게 기여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제34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정병헌 판소리 연구가가 선정되었다.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신유섭)는 동리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소리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정병헌 판소리 연구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판소리 연구가가 '동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강한영선생(3회), 이보형 선생(28회) 이후 3번째다. 정병헌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신재효 판소



리사설의 형성배경과 작품세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40여 권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50여 년동안 판소리 연구에 매진하여 신재효 판소리사설의 연구, 판소리문학론, 신재효 연구, 판소리와 한국문화, 교주 조선창극사, 판소리와 사람들, 신재효의 가사, 판소리예술론, 판소리의 역사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판소리의 역사는 최초의 본격적인 판소리 역사서로 판소리 연구를 집대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 연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병헌 박사는 판소리학회 회장, 공연문화학회 회장,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장, 전국의 명창대회 심사위원 등의 사회 활동을 통하여 판소리의 확산에도 지대한 노력을 했다. 한편, 고창군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신유섭)는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업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연장자, 고수, 판소리 연구가를 선정해 매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개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성황리 개최

'천년 한지! 문화로 받들고 산업으로 꽃피우다' 주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24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 따르면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담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9~13일 '천년 한지! 문화로 받들고 산업으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한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한지 축제로 명성을 재확인했다.

올해는 전주페스타가 진행 중인 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원화해 전시 관람형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한지 문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행사 첫날인 9일 한글날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제4회 전국 어린이 한지미술대회'가 펼쳐졌다.

지난해까지 공모전으로 진행해 온 미술대회는 올해 사생대회 형식으로 바뀌어 가족과 함께 찾는 유치부,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을별을 느끼며 미술 솜씨를 한지 도화지 위에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담에서는 △한지의 유물과 함께 역사를 보여주는 '한지역사주제관' △한지 벽지, 장판, 소품 등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을 전 시한 '한지산업주제관' △일본 화지, 이집트 파피루스 등 세계 전통종이를 살펴보는 '국제종이문화기획전' △전국한지공예대전 초대작

가전 △한지현대조형기획전 등 전시 관람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전주페스타가 운영 중인 종합경기장에서는 11~13일 △한지공예 체험 △한지문화 체험 부스 △가방, 피산, 문정 등 전국 각 지역 한지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지역 한지 브랜드관' △한지상품 판매관 △국기무형유산 인치용 한지장이 참여하는 '전통한지 뜨기 공개 시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 전주페스타의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와 어우러지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1일 저녁에는 세계 각국의 의상을 한지로 제작해 꾸러지는 '국제한지패션쇼'와 함께 전주페스타를 축하하는 드론쇼가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밖에도 10월 10일 한지의 날을 맞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원하는 한지의 날 리셉션이 열렸다.

김도영 원장은 "올해 개최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행사 규모 확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내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염원을 담아 한지문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선보일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문화의 달 행사' 18~20일 열린다

남원시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한국 대표정원인 관란투원 일원에서 2024년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3일 동안 관란투원 완월정 특설무대, 예투원 무대 등에서 청춘의 열정이 감동을 전하는 다채로운 색깔의 '전통의 선율'이 '현대 리듬'과 만나는 퓨전국악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는 20일 완월정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퓨전소리콘서트'가 다양한 장르의 퓨전국악과 재즈, 조선잡, 국악 트롯 공연 등 대중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진솔

한 소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18일부터 20일까지 완월정 특설무대와 예투원 무대에서는 청춘미이크공연과 국악 버스킹이 매일 2회 펼쳐지고, 18일 오후 1시, 19일 오전 10시에는 관란투원 월매집에서 번사가 들려주는 퓨전마당극 '춘향'이 있다. 이밖에도 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완월정 특설무대에서는 남원 국악예술고 학생들과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이 꾸미는 '청소년국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의 10월 가을 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예술가들이 단순히 전통



을 이어 나가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자신만의 색깔로 해석한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며, 남원에서 청춘의 에너지를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농협

"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불어와요 "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갈 자신감으로부터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NH 농협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조 상 완

부안농협조합장 김 원 철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 정 식
계화농협조합장 이 석 훈	남부안농협조합장 최 우 식
변산농협조합장 김 병 식	하서농협조합장 기 세 원